□ 완역 개정판에 덧붙여/4
□ 초판 머리말/6

오언고시

젊은이의 노래 ■ 12
느낌 ■ 14
난초 내 모습 ■ 14
부귀를 구하지 않으리라 ■ 15
하늘의 이치를 벗어나기는 어려워라 ■ 16
봉래산에 올라 ■ 17
아들 죽음에 곡하다 ■ 18
회포를 풀다 ■ 20
내 소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■ 20
봉황은 대나무 열매만 먹네 ■ 22
다른 여인에게는 주지 마셔요 ■ 23
새 여인에게는 주지 마셔요 ■ 24
시가 사람을 가난케 한단 말을 비로소 믿겠네 ■ 25
부용봉에 오르다 ■ 26
님의 편지를 받고서 ■ 27
순임금을 뵈오리라 ■ 28
오라버니 하곡께 ■ 30

칠언고시

임을 그리며 ■ 32
손가락에 봉선화를 물들이고 ■ 33
신선세계를 바라보며 ■ 35
소상강 거문고 노래 ■ 37
사계절 노래 ■ 39
봄 ■ 39
여름 ■ 40
가을 ■ 42

겨울 ■ 43

오언율시

변방에 출정하는 노래 ■ 46
이의산의 체를 본받아 ■ 48
심아지 체를 본받아 ■ 51
처녀적 친구들에게 ■ 53
갑산으로 귀양가는 하곡 오라버니께 ■ 54

칠언율시

봄날에 느낌이 있어 ■ 56
가운데 오라버니의 <견성암> 시에 차운하다 ■ 57
자수궁에서 자며 여관에게 바치다 ■ 59
꿈을 시로 짓다 ■ 60
가운데 오라버니의 <고원 망고대> 시에 차운하여 짓다 ■ 62
도 닦으러 가는 궁녀를 배웅하다 ■ 66
심맹균의 <중명풍우도>에 쓰다 ■ 67
황제가 천단에 제를 지내다 ■ 68
손학사의 <북리> 시에 차운하다 ■ 69

오언절구

성을 쌓는 노래 ■ 71
막수의 노래 ■ 73
가난한 여인의 노래 ■ 75
최국보의 체를 본받아 짓다 ■ 77
장간리 노래 ■ 79
강남 노래 ■ 81
장사꾼의 노래 ■ 84
서로 만나는 노래 ■ 86
대제의 노래 ■ 87

칠언절구

하늘을 거니는 노래 ■ 90
색주가의 노래 ■ 92
수자리 노래 ■ 93
요새로 들어가는 노래 ■ 96
죽지사 ■ 99
서릉의 노래 ■ 102
둑 위의 노래 ■ 103
그네뛰기 노래 ■ 104
궁녀의 노래 20수 ■ 105
버들가지 노래 ■ 117
횡당 못가의 노래 ■ 120
밤마다 부르는 노래 ■ 121
유선사 87수 ■ 122

그밖의 시들

밤에 앉아서 ■ 173
규방에서 원망하다 ■ 174
가을의 한 ■ 176

부록

광한전 백옥루 상량문 ■ 178
한스러운 마음을 읊다 ■ 190
꿈에 광상산에 노닐며 지은 시와 그 서문 ■ 192
　그 시는 이렇다 ■ 194
난설헌집 발문 ■ 195

□ 누이 난설헌에게 붓을 보내며 : 허 봉/ 196
□ ≪두율≫ 시집 뒤에다 써서 난설헌에게 주다 : 허 봉/ 197
□ 해설: 정한의 여인 난설헌의 삶과 시/ 198
□ 연보/ 215
□ 원시제목 찾아보기/ 221